

<이공본풀이>

- 일시 : 2018. 08. 18

초공은 신빨립네다. 이공은 꽃불립네다. 삼공은 노전상 노불립네다.

오늘 이공서천도산국은 난수생 본술생 과광성 신풀어 올리저 영 협네다. 난산국 본풀건 본산국더레 제느려삼서. 제느려사면,

원진국 대감님 지에김전국 대감님 혼동네 살앙 혼 날 혼 시에 솟아나니. 형제간 곁이 의형제를 맺언 살앗구나. 의형제를 맺언 살아신디, 혼 설 두 설 열다섯 십오세가 넘으니 남녀 간에 부베간을 삼아신디, 원진국 대감님도 즈식이 엇고 김전국 대감님도 즈식이 엇언. 사노렌 허난,

흐를 날은,

이 중이 대스는 요까지 다 느려양.

흐를 날은 중이 대스님이 느려산 권젤 받으레 원진국 대감님전 느리난, 권젤 내언 돌아사젠 허난 허는 말이, 원진국대감님이,

“절간 지컨 중이 대스님아, 우리 스주팔즈 둘러봅서. 우리 애기 엇이렌 현 팔즈웬?” 허난,

“애기 엇영 무으렌 현 팔즌 아니우다.”

“어떻허민 뉘쿠과?”

“불법당에 올라상은에 강 수록이나 드러봅서.”

대스님은 칩칩 산중더레 올라사니.

원진국 대감님은 하늘 아래 거부제로 잘 살아지난, 상백미 중백미 웨백미 일천 섬을 출려놓고, 경 헤뵙 가젠 헤신디, 경 헤도 형제간 곁이 살고 의형제 맺영 사는디 나만 가기는 그렇주. 경 허난,

“김전국 대감님아, 불법당에 수록 드림신디 읍서 가젠.”

허난,

“원진국 대감님은 춤 하늘 아래 거부제로 살아, 거부제로 사난에 대백미도 일천 섬 중백미 웨백미 일천 섬을 출령 값우다 마는, 난 가난허고 서난허영 즈반 먹으멍 점심 걱정허고, 점심 먹어 저녁 걱정 허는디 앓영 갈 쫓이 엇우텐.”

허난, 그때엔 허는 말이,

“아이고, 경 헤도 걸읍센.”

허난, 방울방울 좇어다네 가지깁일 흐나 헤연 올라사는구나. 올라사근에 밤인 수록 낮이 원불, 수록원정 드리니, 백일째 뉘는 날은 꽃가마 은저울대로 저울이니, 대백미 중백미 웨백미 일천 섬 출령 간 원진국 대감님은 아흔아홉 군량백이 아니뵙고, 가지깁이 으멘이 현, 가지깁이 흐나 거령간 어른은 백근이 찬 거라. 거난 옛날도 모

음이 정성이라. 분명히 모음이 정성이라.

백근이 차난 생불꽃이 느린 듯 험네다. 느려삽서. 느려사난 허는 말이, 원진국 대감님은 그자 당신이 하영 정 가고 잘 살아지난 아들 날 걸로 생각허난,

“날랑 아들과 김진국 대감님이랑 딸 나건덜랑 읍서 우리 사돈허게. 또, 아들, 아들 나건덜랑 우리 대 이영 의형제를 맺어주겐.”

허난, 구덕혼설 험거라. 구덕혼설 행 느려사니.

석 덜 백 일이 웨여가니, 열 덜과만차니 원진국 대감님은 애길 낳는 게 딸을 난거라. 딸을 나난 원강에미로 이름 생명을 지왔구나. 가난허고 서난허고, 먹을 거 엇인 집인 아들 난거라. 아들 나난 사라대왕으로 이름 생명을 지왔구나. 영 허영 이 애기 딸이 혼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가 넘어간, 이제 혼인기가 웬거라. 거난 원진국 대감님은 수록 드령 오명, 공 드령 오명 곶은 말이 있어, 경 해도 아들 나나 딸 나나 사돈허겐 헤신디, 우리딸 가난헌 집 보내노민 고생험 거 뻘험. 올명 살거주게. 올명 살거난, 이제 산과를 난, 혼인 허는 사름을 난. 이레저레 중매를 험거라. 중매를 헤신디, 험다 험 집일 다 와도 원강에미는 거들떠도 안보는거라.

영 살아가고, 사라대왕은 허는 말이,

“아바님아, 아바님아, 무신 곶을 말이나 엇엇우겐?”

허난,

“그게 아니고, 우리 남녀간에 부베간을 무언 애기가 엇이난 수록 드령 느려사다네 아들 딸 나건 사돈허겐 험저.”

“계건 아바님아, 가건에 말 혼 마디만 곶아줍서.”

김진국 대감이 원진국 대감님에 가근에 츄마 말 곤젠 해도 가난헤부난 딸 줍센 말을 못허는거라. 앓앗당 일어사고 앓앗당 일어사난, 사라도령이 으망진 거주게.

“내릅서. 나대로 강 곶으쿠다.”

가근앵아, 상동나무 용얼럭지, 은가락지도 엇고 금가락지도 엇어. 앓앵 강 원강에미신디 줄 건 상동나무 용얼럭지 뻘이 엇어. 요결 앓어 강 탁 내미난, 원강에미가 서른으담 니빠테기 허우덩석 웃어가거든. 경허난, 원진국 대감님, 아바님이 허는 말이, “느가 고생헌 질이난 느가 알양 허라.”

거난, 부베간을 무어서 살아가는디 애길 벤거라. 애길 베언 이제, 금방 애길 벤거지. 베연이신디. 하늘옥황에서 서천꽃बाट디서 꽃감관 꽃생인 살레옴센 허난, 편지장이 오곡가곡 허난에, 답장이 오라가난, 사라도령 근심을 허는 거라. 이 각실 어떻게똥가코 하도 근심을 헤가는디. 원강에미가 벤 애길 갖언 동문 베깃디레 물질레 오라가난, 하늘 옥황에서 서천꽃बाट디서 꽃감관 꽃생인들이 느려산 허는 말이,

“여기 사라대왕 사는 디가 어디파?”

“무사 들엿우겐?”

허난,

“그게 아니고 서천꽃बाट디서 살레오렌 헤신디 멧 번 멧 번 편지 답장을 허여도 아니 오랴우다.”

영 허난, 질을 그르치난, 원강에민 저 먼디 샷단 올라가부난, 궂사 들어도, 물론 추
룩 들어강

“궂사 와난 어른 누게짜?”

허난,

“아무도 아니라.”

영 헤신디

“글읍서.”

경 허난,

“그게 아니고, 하늘 옥황에 서천꽃밭디서 꽃감관을 살레오렌 헛젠 오랏젠.”

허난에,

“어느 명이랑 거역을 허쿠광. 올라삼서.”

개난,

“개민, 각실 어떻헤똥 가느니?”

“날랑 돌앙가당 서천꽃밭 먼 버든디 강 나 못영 살암시크메 꽃감관 연삼 년 살앙
올때랑은에 나를 돌앙옵셴.”

허난에,

“경 허렌.”

가단보난, 해는 서산열락에 지어, 짙은 밤이 돼어가난, 부베간이 어욱폐기 영 헨에
치매 들런 누엇이난,

이 대목에서

천하득은 목을 내려 즈지반반 울고, 지하득은 목을 들렁 즈지반반 울고, 인왕득은
늘게 들렁 즈지반반 울어가는구나. 득 울음소리가 나난, 원강에미가 허는 말이,

“저 득은 어디서 우는 득이짜?”

“제인들어 제인장제 집이, 만년들어 만년장제 집이, 부제칩이 득 우는소리로구나.”

“경 허건덜랑 날랑 그디 강 종으로 풀아똥 가근에 강 읍셴.”

허난,

“아니, 세상천지 이녁 각실 종으로 폰덴 말이 무신 말인고.”

“나 그디서 열심히 애기 나명 잘 키우멍 살암시크메 강 오당 돌앙옵셴.”

허난,

“경 허렌.”

헐 수 엇이 들어간,

“이 종 삼서. 이 종 삼셴.”

허난, 제인들어 제인장제 집이 딸이 세 성제가 잇이난,

“야, 큰딸아, 저레 나고보라.”

큰 딸이 나강 허는 말이,

“아바님아, 저 종 사지맙서. 우리 집이 신세막 끝 종이우텐.”

허난,

“계건 느 방으로 들어가렌.”

두 번째 딸이 나간보난,

“아바님아, 저 종 사지맙서. 우리 집이 망혈 종이우다.”

“아이고, 느 방으로 들어가라. 죽은 딸은 나고보라.”

나고보난,

원강에미가 돌아사명 치메각을 왼쪽에서 느단쪽으로 획 들르명 돌아사는 게 양반칩이 딸이라.

“아바님아, 행색은 정해도 양반칩이 딸인 듯 허난, 저 종 사근에 시름이나 시킵서.”

“겐 얼마나 받을티?”

“날라근에가 돈으로 백 냥 받고 배안에 잇인 애기는 은으로 삼백 냥을 줍센.”

허난,

“어떻허난 배 안에 잇인 애기가 비싸넨?”

허난,

“이 애긴 태몽을 허난 아들이난, 이 애긴 나민 혼 놉 역 혈디 두 놉 역 허고, 두 놉 역 혈디 네 놉 역 허고 영 험니텐.”

허난, 그 돈을 쥬 사난, 허는 말이,

“부베간을 삼젠 허민, 저 먼 울레에 집을 짓어나근에 본 남편광 맞상 출령 먹영 전송 올려사 부베간을 삼읍니텐.”

허난,

“경 허렌.”

잘 사는 집이난 집 혼 거리 짓는 거사 금방이주. 확 짓영 내난. 저녁 상을 출려 난, 이젠 부베간이 사라대왕 원강에민 비새 곶이 울거주. 울명 전송허젠 허난, 허는 말이,

“배 안네 잇인 애기 나민 무시거옌 이름 생명 지웁네까?”

“아들랑 낳건 신산만산 한락궁이로 이름 생명 지으고, 딸랑 낳건 한라택이로 이름 생명을 지으라.”

“계민 본메본전을 줍센.”

허난, 상동나무 용얼럭지, 장계 갈 때 용얼럭지, 그걸 두 개 똑 꺾어네 반씩 앗앙 간거라. 간 허난, 전송을 허여두고 사노렌 허난, 제인들어 제인장제가 부베간을 삼젠 간,

“이 문 올렌.”

허난,

“누게퀸?”

허난,

“나, 제인들어 제인장제라. 시름이나 시끄젠 오랏구나.”

영 헌건 부베간을 삼젠 온거라이.

“이 고을 법은 어떻헌지 몰라도 우리 고을 법은 배 속에 잇인 애기 낳아뒤사 부베

간을 삼읍네다.”

“기영 허렌.”

나난에 아들을 난 거 아니라. 아들 나난, 곤는 대로, 사라대왕 말대로 이름 생명 ‘한 락궁이’로 이름 생명 지와놓고. 이 얘기가 대으섯 설 예스일곱 설이 웨어가난 동골 동골 걸어가가난, 잠대메영 बात을 갈 지경이 웨값어. 경 허난 허는 말이, 또 완 허는 말이,

“이 문 올라.”

부베간을 삼으레 왔구나.

“이 고을법은 어떻헌지 몰라도 우리 고을법은 저 얘기가 대으섯 설이 넘고 예스일곱 설이 넘영 잠대메영 बात을 갈아사 부베간을 삼읍네다.”

이젠 बात 갈아도 부베간을 안 삼아가난, 용심이 난거라. 죽일판으로 돌려들젠 허난, 딸들이 허는 말이,

“아바님아, 어떻허연 양반이 집이서 사름을 죽입네까.”

“경 허믄 어떻허믄 웨크니?”

“웬벌역이나 시켜봅서.”

“어떻허믄 웨크니?”

허난,

“어명이랑 하루 저녁에 베틀에 앗아근에양 미녕을 차웨 선동일 차렌허고, 아들랑 하루 저녁에 노를 선 동일 꼬렌 험서.”

경 헌디 베틀ㄹ레 탁 앗앙 흥번 들각허난, 꽃감관에 신령으로 하루 저녁에 미녕 선동이 다 짜지는거라. 아들도 노를 흥번 싹 꼬민 꽃감관에 영급으로 선 동일 확 짜지는거라. 이것도 아니웨언. 이제는 쉼신발을 내어난, 쉼질메 아무도 메와주지 말앙 불미불산 아약산성에 올라사근에 관관쉼여 삭다리. 관관쉼라는 건 이제, 올라가민 삭다리영. 삭은 낭덜. 지들것들 행 오렌 허는거주게. 겐 허난, 쉼질메도 하나 메민 쉼 선게가 다 메와져. 이제 불미불산 아약산으로 올라간, 술입이여 술피낭이여 삭은 낭이여 문딱 모두완. 쉼 하나에 시경 베려보민 쉼 선개 문딱 시켜져. 이것도 꽃감관에 영급이라. 거난 이제 오난에 이것도 안웨크라. 이젠 허는 말이,

“벨진 बात 돌진 बात ㄹ랑 줍쉴 석 섬 닷 말 칠세오리 강 뿌려뵤 오렌.”

허난, 기가 찰 노릇이라. 이제는 벨진 बात 돌진 बात 강 ㄹ랑 줍쉴 석 섬 닷 말을 앗영 강 문딱 빼어 놓고. 이제는 쉼 엇어. 거난, 어명은 쉼 노릇허고 아들은 बात갈라체 허고, 거난 어명은 잠대 메영 앞이서 꼬스민 아들은 बात 갈아사 험거 아니라. 경 험 이제는 문딱 씨 드리쳐 뵤 오난에 허는 말이,

“씨 드리쳐뵤 문딱 헤 뵤 왔우덴.”

허난, 간 돌아보난 다 험거든. 거난 이젠 핑젠 뵤거 엇고, 미시거험 곶양 이걸 또 웬벌역을 시킬꼬 허난에.

“고추일에 벨망일에 하와일에 가서 씨를 드리쳐시난 그 줍씨 석 섬 닷 말 선 섬 뿌려논 걸 문딱 좃영오라.”

아니, 좁쌀을 어떻 짓을거라. 짓을 일이 었어. 이젠 애새끼가 비새글이 울멍 간보난
에 게염지덜이 꽃감관에 영급으로 게염지덜러레 문딱 물어당 혼밧디레 모다 낫거
든. 겐 와네, 관뉘로, 와네. 관뉘 속에 노난 딱 차는거라. 딱 차신디 좁쌀 혼 방울이
떨어지난, 관뉘 혼 착이, 네 귀가 ㅋ짱헤야 될 건디 관뉘 혼 착이 비어. 거난 그뎨
이제 먹었느냐, 썻느냐. 후욕노욕을 헤여가는거주. 헤가난, 좁쌀 혼 방울 강 좇아오
렌 허난, 아니 그 대천 너른 밧디 강 좁쌀 혼 방울을 어떻 좇아. 이젠 가단보니, 장
게염지가 좁쌀 방울을 물영 가는거라. 에이 부어나고 용심나난 그자 게염지 가운데
바락허게 블른거라. 경 허난, 좁씨가 밀룩허게 바끄난 그걸 앗앙와네 딱 관뉘에 노
난 네 귀가 ㅋ짱헌거라. 그 법으로 게염지 그때 블라비엿덴 헤영, 우리 장귀 가운데
장군모작을 설련헛주게. 거난 장구가 이디, 게염지들 호리허지 안허여 장구도 똑글
은 원리라. 그래서 이제는 장귀모작을 설련허엿우다. 이젠 그디도 허단허단 버치난
포기헌거라. 거난 이젠 한락궁이가 허는 말이,
“어머님아, 콩이나 볍읍센.”

허난,

“우리 가난허고 서난헨 콩이 어디시니?”

허난,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년들어 만년장제 집이 놀 놀어난디 놀굽에 강 좇어당 방울방
울 험서.”

경 허난, 놀 놀어난디 강 보난, 콩씨 방울 혼 방울 두 방울, 그자 아멩헤도 혼 사발
은 헤단 솟디 난 볍으는거라. 콩 볍아가난, 한락궁인 들어사명

“어머님아, 저 올레 누게가 불렀우덴.”

허난, 사라도령이나 와시카부덴 콩 볍단 내비된 돌은거라. 돌아가난, 아들은 이제
남죽이여 국자여 순구락이여 밥자여 문딱 곱져분거라. 곱져단, 간 보난 아무도 었
어. 올레 간 보난, 이젠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콩 캄수다. 제게 왕 콩 짓읍센.”

허난, 오란보난, 남죽도 었고 국자도 었고 밥자도 었고 아무것도 었인거라. 게난

“어머니 손으로라도 확확 짓읍서.”

허난, 아들이 어머니 손을 꼭 녹들멍

“바른 말을 험서. 우리 아버지 누게짜?”

“이 손 내불라.”

“바른 말을 험 때 깃지 안노쿠덴.”

허난, 그뎨

“바른 말을 허마.”

허난, 곱으난에.

“웨진녁은, 성진녁은 김전국 대감님이고 웨진녁은 원진국 대감님이여. 아바님은 사
라대왕인디 서천꽃밧 꽃감관 살레갓젠.”

허멍 이제 사실 말을 문딱 곱은 거라. 곱으난 이젠, 아들이 허는 말이,

“어머님아, 범벅을 해 놓서. 나가 아바님 좇아오크메. 범벅을 헉센.”

허난,

“범벅을 허뵈 두 덩어리랑 짤짤하게 허고, 한 덩어리랑 간을 맞춥서.”

경 허렌 헨에 이젠, 범벅을 헨 내노난, 한락궁이가 가명 허는 말이,

“어머님아, 나 나가도 나갓젠 허지맙서. 잠시 어디 갓젠헉서. 어머님, 죽읍네다.”

경 허난, 이젠 아덜은 나가는 사이에 다 후망엔 갓단 어멍은 짚은 궁더레 가뉘분거
라. 가뉘부난, 몰란 이젠 한락궁인 아방 좇앙 가는거주. 가단보난, 천리동이 만리동
이가 근당허니, 물엄직이 돌려드난,

“야, 느도 종놈 나도 종놈이여. 놈이 집 종살이 허는 건 레어 논 밥도 놔뵈 가는거
여. 요 범벅이나 먹으라.”

혹허게 데끼난, 먹으난 짤짤허난, 물 먹으레 가는 사이에 천리동일 넘어가고, 가단
보난, 만리동이 물엄직이, 네눈이반둥개가 물엄직이 돌려들어간

“야, 느도 종놈이여. 나도 종놈이여. 놈이 집이 종살이 허건, 먹단 밥도 놓아뵈 가는
게, 숟가락도 놓아뵈 가는게 종이여. 이 범벅이나 먹으라”

허멍 혹허게 데끼난, 먹으난 짤짤허난, 물 먹으레 간 세에 만리동일 넘어간다. 발등
물도 넘어든다. 준등물도 넘어든다. 목진물도 넘어든다. 넘어가네 신뵈방 아레 발아
앗언 서천꽃밭덜 들어간보니, 춤 이 세상에 엇인 나라라. 오만 화초 꽃이 화려허고,
가지 꽃 분리 꽃 스만오천 가지가 다 동더레 서르레 북더레 남더레 벌은 가지가 다
잇고,

이 대목에서 큰집이, 큰굿 헉 때, 서천꽃 연질 칠 때는 동더레 머리 돌민 동부제,
서르레 머리 돌령 나민 서가난 헨 산덴 허고, 남더레 머리 돌민 남장수, 북더레 머
리 돌민 북단명 헌덴 허영. 영 헨 허난,

그때에는 강 베려보난, 꽃감관 꽃생인이 궁네청 원예청 신예청 소남청 남네청 7라
물을 주렌 허니. 애기덜은 물 줄 그릇 엇이난 깨진 사발에, 다락 깨진 거, 장터 깨
진 것에 대차반지에 불을 질영 가민 물이 문딱 세나부난 옷도 다 젖어가는거라. 또
이젠 사발에 물 질어가당 마이정당 쉼정당에 발걸려지난 시러지난 물을 문딱 쏟아
부난, 꽃감관신디 욱은 들어가고, 휘초리로 뵈 맞아간, 그뵈 비새 곶이 울어가는
거라. 비새 곶이 울멍 이 대목에선 돌아상 허는 말이,

서천꽃밭디서 물 주레 갑네다. 영 헨 물 췌허면 그뵈 이제부뵈 큰 곶헉 뵈 대목이
들어 가,

궁네청 원예청 신예청 남도청 정남청 소남청이로구나. 대차반지 사기사발 물 질영
가당 쏟아지고 마이정당 쉼정당에 발을 걸령 넘어지영 씨러지민 물 문딱 쏟아불민
꽃감관 꽃생인 후육누육 허영. 애기들 비새 곶이, 이승더레 돌아상. 나 나준 아바님
네, 나 나준 어머님네 나 형제간들 좇앙 비새 곶이 울어가민 이승 잇인 애기덜이
곶인 악심덜 불러주고,

잘 사는 집이 애기덜, 양반칩이 애기덜은 노동저고리에 입영 뵈사발에 밥을 먹고
뵈사발에 국을 먹고,

가난한 집이 애기덜은 사기사발 대차반지에 밥을 먹고, 우리네 심방칩이 애기덜은
신공깃상 떡 먹는 애기들.

양반이 애기덜은 대항간 질로 가도, 가난허고 천헌 집이 애기덜은 담 에염으로 걸
어 탕기고,

저승은, 서천꽃밭디 간 보난 무례가 엇구나. 잘사는 집이 애긴 양반칩이 애기 가난
헌 집이 애기가 다 평등허게 사는디로구나. 오늘 은동이 값 놋동이 값 걸없우다. 이
주당 아무가이, 아무 서천꽃밭 가던 애기덜 궁네청 원예청 신예청 소남청 정남청덜
노는 딜로 지부썩썩서.

영 허영 이 대목에 켤당덜이고, 큰굿 혈 때는 다 왕 앗앙 잇이메. 이 대목도 역불로
보젠허메. 거면 다, 전체가 울어. 굿 혈 땀 울어지메, 하영, 그땀 애기덜은 천원 짜
리 좋아안허영 몰라. 저승 간 애기덜은 다 십 원짜리 백 원짜리, 난 오백 원짜리도
놓지 말렌허여 지금도. 다 십 원짜리, 백 원짜리. 게민 영 들르민, 물사발러레 도골
락 소리나게 놔. 소리가 나아 돼. 경 험사 애기덜이 알아. 경 험 이제 그걸 앗앙 보
내주게. 보냉허민, 그디 강 허민 좋은 자리 우리 애기덜 앗저썩서 영허는 식으로.
칠월 한기가 돼어 검뉴울 꽃이 돼니, 꽃이 문딱 2물어 비어. 큰일난거라. 이젠 그
때엔 물 주렌 허난, 다시 잘 소중히 거런 은동이 놋동이에 물을 거런노니 꽃이 번
성이 돼가는거라.

우리 굿 혈땀 작박에 침 질릅서. 혼 입이 두 입이여. 세 입이 네 입이여. 종제기만
썩 사발만썩 영 허영 문딱 곁아가주. 영 곁안 허난, 영 허여가니,

“나무 우이 무지력총각이 오란 앗앗수덴.”

허난, 사라도령이,

“귀신이건들랑 옥황더레 올르곡, 생인이건덜랑 앞더레 오렌.”

허난, 오는 건 뵈련보난 무지력 총각이라.

“어뎡헨 오랏느냐?”

“아바님을 좇안 오랏수다.”

“아바님이 누겐 줄 알겠느냐?”

“사라대왕 입네다.”

“어뎡은 누게냐?”

“원강에미우다.”

“성진녁 웨진녁은 누겔러냐?”

“원진국 짐진국 대감입니다.”

그게 맞은거라. 맞으난,

“본메본쩍 잇겠느냐?”

“잇습네다.”

“뵈이넨?”

허난, 상동나무 용얼럭지 꺾어진 걸 내어노니 맞춰보니 딱 맞아. 이젠 은대양에 놋
대양에 물을 거려오라. 물을 거려다 놔서 통기낭 가시 험에 손가락에 꼭 찢런 들리

가 피를 탁하게 흐 방울씩 떨어지던, 그 물에 뱅뱅뱅뱅 돌거든. 그러해서 합도가 돼
니

“넌, 나 즈식이 분명하다.”

거난, 우리 친자확인엔 그 옛날부터 잇었던 일이라. 친자확인엔. 그래서 요즘은 본
풀이 헐 때는 조금 이 말을 더 붙여, 그 법으로 친자확인법이 됐다. 영 글아 요즘
은. 시대에 따라.

이제 허는 말이,

“제게 강 어머님을 들양오라.”

“경 험서.”

느려사젠 허니, 웃음꽃 뿔망꽃 살아날꽃 피오를꽃 말글을꽃 아는 꽃들 문딱 앓영
느려사니,

왔젠 허난,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년들어 만년장제 집이서 죽일 판으로 들려든거라.

경 허난 허는말이, 한락궁이가,

“나, 경 허민 제주나 흐 번 부러뵤 죽으쿠다.”

“너가 제주를 부릴 수 잇겠느냐?”

“잇습네다.”

허난, 이제 꽃을 내어노니 막 니 머리 내 머리 튼어가멍 싸와가.

“또 흐 번 제줄 부리쿠다.”

“뵤이넌?”

허난, 웃음꽃을 내어노니, 막 둥글멍 웃어가.

“또 흐 번 제줄 부리쿠다.”

“뵤냐?”

허난, 뿔망꽃을 내어노니 성진성편 웨진웨편이 다 뿔망이 뵤부는거라. 다 망해부는
거라. 아무도 엇어. 건디 다 망하다가 그 죽은뿔이 허는 말이,

“오라바님 날 살립센.”

허난,

“우리 아방이 너네 어멍이영 아니, 우리 어멍이 너네 아방이영 즘을 잣더냐? 너네
아방이 우리 어멍이영 즘을 잣더냐?”

거난, 경 글아가난,

“아이고, 경 허건들랑 상전님아, 날 살립서.”

허난,

“니가 상전이지, 내가 상전이나? 우리 어머니 잇는 곳을 대라.”

경 허난 간 보난, 어머님 눈 곳은 간 보난, 대추낭에 엮어지고 엮혀지고, 문딱 엮혀
진거라.

엮혀전, 이 대목에선 들이 송송 별이 송송 이 말도 글아.

경 허난, 그걸 문딱 걷언보난, 어머님은 짙은 궁에 가두왔거든. 이젠 어머님을 살려
놓고, 말글을꽃 피오를꽃 문딱 헤연 어머님을 살려난. 어머님 누워난 딜 내볼랴. 문

딱 모두완. 모두와단 방울방울 문딱 만들어놨. 그 법으로 고리동벽 안동벽 힌동벽을 마련허연. 앓은제는 일곱 방울, 우리 남쪽드렌예. 큰곳에는 열네 방울 심방칩이는 안팎 쓰물으담 방울 영 설련을 허엿수다. 이 대목에서 마지막 대목엔 우리, 공깃상에 큰곳을, 스당클 메민 혼 바퀴 뽕 돌아와. 경 헨 마지막엔 문전더레 딱 돌아와. 갈 디가 엇거든.

그러면 이 대목에서 그뻘 고리동벽이고 뭐고 다 공깃상더레 앓아 놔. 겐 본풀이 헨 마지막, 문딱 본풀이 다 헤 낱, 신공시 풀이 다 헤 낱. 중간에 막산이 동산 막산이 곳에 강 보난 밤낱이 하나 잇엇구나. 밤이 도랑도랑 열렸구나. 밤밭디 밤나라 밤밭디 밤나라 아틀레기 동글동글 뜰레기 동글동글 허민, 본주 어멍이 치메를 영 별경 앓으며 영 들렁. 게민, 방울 떡 해근에강 탁허게 놔. 게면 거기서 이 집이 즈순이 귀허고 안 귀허고 판단을 허는거라. 떡으로. 그걸 해두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그걸 들러가지고 영 동골락 사발 모양으로 만들메, 만들 영

“어머님아, 어머님아, 이제랑 어머니 신가슴을 누게가 올리. 어머님 신가슴도 올립서.”

허멍. 고리동벽을 반쪽으로 딱 꺾어. 딱 꺾어근에 현디. 옛날은 방울떡은 본주네가, 옛날은 믰물떡으로, 이걸 똑 믰물떡으로 멘들아. 왜 믰물떡으로 멘드냐. 믰물떡은 썩고 곱생이가 피어도 우잇거만 찢저뵤 다 먹어. 탈이 없어. 경 허고, 고리동벽 사발모양으로 벌른 건, 우리가 가정 왕 당주에 올렛당 그걸 먹어야 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남쪽더렌 곳허젠 허민 그 법이 잇기 때문에.

문딱 헤영 올라간. 이 대목에서도 옥신각신 허여. 어떤 어른은 영 곱으멍 저승 유모 어머니로 들어샷우다. 어뻬 헛우다. 허는디, 그게 맞은거 님아. 거난 이 대목에서는 인정 걸젠 허민 동해용왕할마님도 곱이 들어가메 원래는. 이 인정거는 대목에는, 서천강 연드리 낱 인정 올려 갈 때는 곱이 이런 게 잇어.

경 헨 허니,

“유모 어머니로 들어삼서. 들어사곡, 느는 이제 이승에서, 내려가근에 사름을 죽이지 말렌 헛인디 사름을 죽엿으니, 너가 부정허고 서정해서 인간 세상세엔 못 살아서 저승 서천꽃밭디 아미처스 도령처스 들어사라.”

영 해서 꽃감관을 완성을 시겨서, 그 대목이 끝나면 산판, 심방이 춤추고 산판을 들러가지고 딱 산을 놔. 상가지 중가지 하가지 꽃 떨어질 일 엇우과. 상가지로 딱 놓고, 중가지로 놓고, 게난 아덜이 세성제 아니라. 게민 상가지 중가지 하가지 아니. 겐, 놓고. 게민 꽃 떨어질 일 엇우다. 영 허면 고맙수덴 허고. 중가지 하가지 영 어느때 깰지랑 멍심협서 허민 예 알앗수다. 허고. 겐 마지막은 우리 심방집이덜 당췌 데기들 몸주택이덜 꽃 떨어질 일 엇이쿠과? 딱 산 놔. 겐 산 놔근에 헨 허민. 산이 잘 지민 허고, 경 아니민 또 그 멍심허렌 현 얘기허고 우리허고 곱이 인정을 또 혼 번 내쳐. 돈 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천으로, 지전으로 내쳐. 경 해근에 이공서천 도산 난산국 신 풀엿수다.

